

지부

특별인터뷰 - 서순철 세종특별자치시지부 회장

“회원과 호흡하며 신뢰감 주는 연맹 만들겠습니다”

서순철(62) 회장이 지난해 5월 25일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해 세종시지부를 이끈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신설지부로 결성된 세종시지부도 어느덧 내년이면 5년차에 들어선다. 1500여 명의 정예회원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서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 내년이면 세종시지부가 결성된 만 5년째가 됩니다. 그동안의 지부 역사와 주요 사업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연맹 16개 시·도지부 회장들과 정광영 부총재, 그리고 김경재 총재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10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이 정부행정기관 이주로 급성장해 인구 26만의 첨단도시로 탈바꿈하는 동안 연맹도 궤를 같이해 지부를 결성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한 것은 연맹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969년 4월 한국반공연맹 연기군지부에서 시작된 세종시지부는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연기군지회를 거쳐 2013년 3월 26일 연맹의 17번째 지부로 태어났습니다. 그 기간에 1986년 12월 자유회관 건립하고 2012년 3월 리모델링을 하는 등의 내실을 다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방견학과 민주시민교육을 위주로 한 안보교육을 중심사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와 자유수호 웅변대회, 청소년리더 통일캠프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연맹과는 오랜 기간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조직 활동과 실제 조직현장에서 느끼신 점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조치원고등학교를 졸업한 이곳 본토박이로 1983년 한국반공연맹 충남 연

기군 청년회원으로 연맹과의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 한국자유총연맹 충남 연기군지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세종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지부 2대 회장으로 추천받아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직 활동을 하다 보니 신설조직의 한계가 있어 여건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직 간부와 회원들의 남

이념단체로 지역사회서 연맹 위상 높일 터 무궁화동산 조성, 회원 배가 운동 추진

다른 열정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 갈 계획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는 ‘신행정수도’로 태동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은 ‘국토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지부도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균형을 이루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라는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 이미지에 맞춰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일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맹에 빛이 되고, 더 나은 연맹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이념단체로 지역사회에서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신뢰감을 주는 조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주요 사업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당면한 안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올해에도 여전히 연맹 주력 사업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수호 활동인 안보교육에 충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중부지역 폭우피해 복구 지원 등의 봉사활동에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등 6대 국민운동 실천 과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회관에 조그마한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길 바랍니다. 이밖에 신설도시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맞춰 회원배가 운동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회원 수 1500명을 넘어 1만 명 달성이 목표입니다. 회원 1만 명 시대가 된다면 세종시의 인구 비례에 대비해 자연스레 연맹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종시지부는 연맹 막내지부다운 역동성을 보여 전국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젊은 보수, 신보수의 모습을 보이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충정을 잊지 말고 통일시대를 향한 발걸음에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종시지부 청년협의회(회장 윤동필)와 여성협의회(회장 백인엽) 회원들이 7월 20일 충북 청주 일대의 폭우 피해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 주요 경력 ■

- 한남대학교 대학원 수료
- 대전지검범죄예방 사무국장
- 세종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한국자유총연맹

100-85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2)2238-0746

◆ 시·도지부 연락처

- 서울 (02) 849-7871
- 부산 (051) 803-7960
- 대구 (053) 621-9880
- 인천 (032) 868-0113
- 광주 (062) 672-5004
- 대전 (042) 242-7601
- 울산 (052) 276-4400
- 세종 (044) 865-4522
- 경기 (031) 235-6166
- 강원 (033) 254-6670
- 충북 (043) 253-7770
- 충남 (041) 881-6045
- 전북 (063) 252-1797
- 전남 (062) 654-2340
- 경북 (054) 973-6312
- 경남 (055) 282-2332
- 제주 (064) 751-0191